

<2022년 8월 21일 주일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1-7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서로,
<신약성경 4복음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보다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행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으로,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를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 <구약> 위에 ‘신약’이 세워졌고,
<신약>의 터전 위에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시니,
<성경>을 알아야 ‘시대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의 역사를 귀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읽어 보면 좋습니다.

<말씀 시작>

▶ <성구 자막>은 ‘설교자’가 준비합니다.

- 오늘의 성경 본문도 <요한복음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7절> =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1> <요한복음 15장 1-4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사람들을 ‘가지’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신을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2>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예수님은 또 한 번 <포도나무>를 ‘자신’ 으로 비유하고
<가지>를 ‘사람들’ 로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 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나무 열매>는 무엇을 두고 비유했을까요?

- ▶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열매’ 입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자신의 죄와 잘못과 모순을 회개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 이며,
<의>도 ‘열매’ 입니다.

- ▶ <화평>도 ‘열매’ 이고,
<충성>도 ‘열매’ 이며,
<궁핍함>도 ‘열매’ 이고,
<생명 전도>도 ‘열매’ 이며,
<복음을 가르치고 생명을 관리하는 것>도 ‘열매’ 입니다.

- ▶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열매’ 이고,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 ▶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것〉도 ‘열매’ 이고,
〈역경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뜻을 찾는 것〉도 ‘열매’ 이고,
〈사탄과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열매’입니다.
- ▶ 〈성삼위와 일체 되는 것〉도 ‘열매’ 이고,
〈구원자와 일체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 ▶ 〈인내하며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도 ‘열매’ 이고,
〈혼란 중에 혀를 금하여 온전한 말을 하는 것〉도 ‘열매’ 이고,
〈어려움 속에 좋은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도 ‘열매’ 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열매’ 이고,
〈성경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삼위 안에, 구원자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

◎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3> <요한복음 15장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 라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지를 가져다 불살라 버립니다.

삼위와 주와 떨어지지 않음으로 ‘살아 있는 가지들’ 이 되어서
앞에서 말한 ‘각종 좋은 열매들’ 을 맺어야 됩니다.

- 우리는 <성경의 비유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꿈이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보여 주시면서,
<각자의 신앙 상태>를 깨닫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열매는 작고, 어떤 열매는 크고,
또 어떤 열매는 크면서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또 어떤 열매는 큰데 자세히 보면 보통 열매입니다.

<열매>에 따라 ‘자기 신앙 상태’ 를 알게 됩니다.
혹은 ‘자기가 기도해 준 생명의 상태’ 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 <마태복음 7장 17~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비유’ 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구 자막4> <마태복음 17장 17-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나무>에서,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행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저마다 ‘좋은 행실, 의의 행실’로
작든 크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5>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하나 된 자>는 ‘자신과 하나’이니,
그에게 자기 것을 줘도 그것이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줍니다.

<하나 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 것을 줘 버리면 자기 것이 아니니, 잘 주지 않습니다.

- 삼위와 하나 되려면, 보낸 자와 하나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안에 ‘삼위와 구원자’가 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삼위와 구원자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와 하나 되어라.
나와 하나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 하나님과 일체, 성령님과 일체, 성자와 일체, 구원자와 일체입니다.
떨어지면 죽은 자로서,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삼위와 구원자와 일체 될 때> ‘부활’입니다.
곧 ‘살아난 자’입니다.

- ▶ <오늘의 핵심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영상>

- 모든 나무들은 <원 나무>에서 ‘순’ 이 나고,
그것이 커서 ‘가지’ 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 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 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나무의 진액과 수분이 가지로 가지 않으니, 가지는 죽게 됩니다.

<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만
나무의 진액과 수분을 빨아들여 ‘열매’ 를 맺습니다.

- 이와 같이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알고 그와 일체 되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잘라 버리지 않는다. 잘된다.” 함입니다.

-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주인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이십니다. ‘구원의 근본’ 이십니다.

<성령님>과 <성자>도 ‘일체’ 로서 ‘근본’ 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끝>